

# SKT, 빅데이터로 지하철 출퇴근 시간 줄인다

서울교통공사와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강남역을 가기 위해 영등포구청 역에서 환승할지, 을지로 4가역에서 환승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서울지하철 혼잡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시간 최적 경로를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서울교통공사와 빅데이터·5G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대중교통 안전 및 혼잡도 해결을 위한 연구 협력'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은 1~9호선으로, 총 290개역에서 하루에 약 700만명이 이용하지만 출퇴근 시간 등 지하철 혼잡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객들의 교통 카드 데이터, 객차에 부착된 무게 감지 사물인터넷



SK텔레콤 강종렬 ICT 인프라센터장(왼쪽)과 서울교통공사 최정균 안전관리 본부장이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진행된 공동 연구 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

(IoT) 센서, 열차 운행·편성 정보 등을 활용해 지하철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객차 내 정확한 인원 산출 및 객차 외에 플랫폼, 지하 환승 통로 등 혼잡도 분석

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SK텔레콤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SK텔레콤이 보유한 다양한 통신 데이터와 서울교통공사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전동차의 하중센서 데이터 등을 활용해 특정 시간대 및 장소별, 객차별 혼잡도 산출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양사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SK텔레콤의 'T map 대중교통' 애플리케이션과 서울교통공사의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로 해 고객에게 혼잡을 피하기 위한 최적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지역 인근에 있는 고객에게 즉시 알림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나 5G 등 무선 통신을 활용해 지하철 이용 시 플랫폼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체운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현대車, 전주시와 수소전기버스 도입 MOU

공해 배출이 전혀 없고 미세먼지 저감까지 가능한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수소전기버스가 전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된다.

현대차는 지난 11일 전주시청(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이인철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본부장(부사장) 등 전주시와 현대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전주시 수소전기 시내버스 도입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차, 전주시, 전주시내

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전주시 내 수소전기버스 보급을 위해 협력하고 친환경 수소 대중교통 도시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함께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와 전주시가 체결한 MOU에 따라 전주시는 2020년부터 매년 15대 이상의 대·폐차 시내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는 전주시의 연평균 대·폐차 시내버스 물량인 약 40대의 40%를 차지한다.

현대차는 전주시의 수소전기 시내버스 도

입 계획에 맞춰 신형 수소전기버스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며, 이와 함께 수소전기버스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 서비스와 수소차 정비 기술의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대차는 내년 생산하는 1호 수소전기버스를 전주시에 전달하고, 전주시는 해당 버스를 전주시 관용차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소전기버스는 현재 서울, 울산, 창원, 부산 등 4곳의 도시에 공급됐으며, 현대차는 연말까지 10 대 이상의 수소전기버스를 추가 공급하고 내년부터 매년 300대 이상의 수소전기버스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http://www.saju4000.com

42년생 푸른색이 행운을 가져온다. 54년생 하던 일이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진다. 66년생 디딤이 생기기 쉬운 날이니 자중. 78년생 여의주가 손에 들어오니 좋은 일이 있다. 90년생 병이 있으나 약도 주어지니 실망은 금물.

43년생 가족의 협조로 일이 잘 성사. 55년생 항상 태양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자. 67년생 시비가 있을 수 있다. 79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 이상책. 91년생 연인의 사랑이 찾아오니 기쁜 일이 생긴다.

44년생 마음은 불편해도 재물을 들어온다. 56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만들어지는 날. 68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펴야 만사가 편하다. 80년생 줄이 길어도 포기하지 마라. 92년생 작은 결함으로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주의를.

45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모이는 법. 5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69년생 시시비비 가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진다. 81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 없다. 93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것도 지혜.

46년생 머리만 믿지 말고 노력을. 58년생 유흥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개가 필수. 70년생 필요이상의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82년생 결혼생활은 양보와 용서로 이루어진다. 94년생 백만 송이의 장미가 길에 널려있다.

47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59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71년생 꼬인 일은 부모님의 조언으로 해결. 83년생 진로수정을 심각하게 고민. 95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으로 행동.

오늘의 운세 10월 14일 (음 9월 16일)



36년생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파. 48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행운이 기다린다. 60년생 기다리던 문서는 잘 살펴라. 72년생 가정의 화복이 가장 먼저이다. 84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자.



37년생 이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49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61년생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린다. 73년생 변동이 있어도 초기일관해야 한다. 85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38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50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나 의외의 곳에서 소득이 생긴다. 62년생 숨겨뒀던 솜씨를 마음껏 발휘. 74년생 마음이 움직힐 편 습니다. 86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배신하기도 한다.



39년생 신세 졌던 사람의 빚을 갚는 날. 51년생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63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75년생 오로지 침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기는 법. 87년생 인생에 휴식이 없이 바쁘게 간다.



40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 52년생 자격지심이 아닌 자존감은 나를 지켜주는 힘. 64년생 가려움증이 생기니 마음이 우울. 76년생 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 88년생 천재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



41년생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 날. 5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이다. 65년생 계획을 세워 차분히 실천하라. 77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89년생 배려를 안 하니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텁텁!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2	8				
7	5	1			3	2		
3				9				
2			3	7		8		
3			4			6		
	6	2			4			
7					5			
1	6			9	8			
			1			4		

			6					
	3	1		2	9			
2		4		8		1		
1	8				6	7		
2			3			4		
3	4				2	8		
8	2	2	9			3		
2	3		1	4				
			7					

스도쿠 정답								
2	5	9	8	1	7	3	6	4
1	6	3	4	5	9	2	1	7
4	8	7	6	3	2	5	4	3
7	9	6	2	8	1	5	2	9
3	1	8	7	4	5	2	9	6
5	2	4	9	6	3	7	1	8
6	3	2	5	7	4	9	8	1
8	7	1	9	6	4	3	2	5
9	4	1	3	2	8	6	7	2

문제 제공= **문제 제공= 문화**

## 또 생리대 악몽

### 기자 수첩



김민서  
<유통&라이프부>

제품을 비방한 광고도 있었다.

생리대는 여성의 필수품이다. 수십 년동안 월에 일주일은 꼬박 사용해야 하는 없어서 안 될 물품인 것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쉽사리 제고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를 자청했지만, 기업의 허위·과대광고가 활개치고 있어 그마저도 무력해지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품인 만큼 가격을 조정하고 제품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리대 하나를 사는데 논란의 유무를 확인해야만 한다. 비싼 값을 치르면서 불안감도 함께 사야만 하는 세상인 것이다. 3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생리대 악몽, 보다 확실한 해결 방안이 절실히다. /min0812@metroseoul.co.kr

## 김상회의四季

### 방편과 사술(詐術) ①



방편과 사술(詐術) ①

'방편'(方便)이라는 말에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손자병법에도 정공법과 기책이 있다. 힘(力)을 얻기 위해서는 정공법이 있어야 기책이 살아나고 기책이 있어야 힘을 얻게 된다. 생활의 실천적 의미로 볼 때 '방편'이란 단어는 샘물 같은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선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한다. 부처님이 중생을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 무수한 법문을 하셨지만 만약 누군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그 앞에서 법문을 하진 않을 것이다. 우선은 물에서 건져내고 빠야 하는 것이다. 그러하듯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우선적인 수단으로 각자의 근거를 참고하여 행하는 방법이자 역시 각각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른 일시적인 수단을 일러 방편이라 칭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급한 일이 있을 때 불교 신자들은 보통은 관음기도를 주로 할 것이다. 하지만 굳이 절에 가질 않더라도 우리의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은 첫새벽 장독대에 정히 물을 떠놓고 칠성기도를 하곤 하였다. 흔히 들어보셨을 부적을 쓴다거나 하는 것도 방편의 한 종류이다. 입춘 때 쓰는 입춘대길(立春大吉)과 같은 입춘첩도, 동지 때 쑤어 먹는 팔죽 역시 방편이 된다. 개금불사 때나 부처님 상을 조성하여 모질 때 뿐리는 팔과 부처님 상을 둘렀던 오색실을 조금씩 잘라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자리에 함께 한 신도들은 이를 소중히 여기며 간직한다. 이 역시 불보살님들의 위신력으로 악하고 죽된 기운을 물리치고 복력은 증장된다고 믿는 방편의 힘일